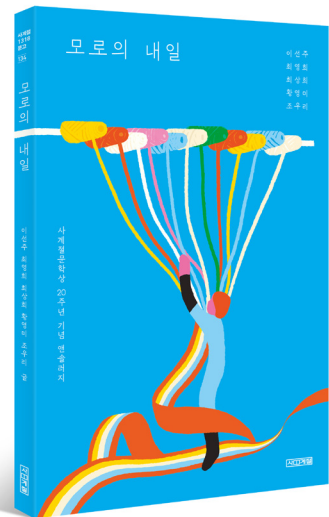

모로의 내일

작성자

성지현(안산교육지원청),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이성균(경기대명고등학교)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로의 내일

이선주, 최영희, 최상희, 황영미, 조우리

■ 주제어 #진로 #세대차이 #정체성 #차이 인정 #과거와 현재 #진정한 사랑 #이주민

■ 분류 문학(소설)

도서 소개

여러분은 각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있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은 기특하고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삶의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타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거나,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며 따르는 삶보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삶을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서로 각자 사는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며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사회 구성원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소설집에는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처럼 선택의 갈림길에 선 친구, 기성세대의 논리가 진리인지 의문이 드는 친구, 뿌리와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낼까 고민하는 친구,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을 안타까워하는 친구, 성 정체성 고민에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인정하는 친구 등이 등장합니다. 소설을 읽으며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어떤 삶을 생각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삶의 모습은 그 자체로 모두 가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말입니다.

학습 목표

- 청소년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치를 찾아 타인과 대화할 수 있다.
-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타인과 소통하며 의미를 탐구할 수 있다.
- 차별 없는 사회를 주제로 정보를 분석하고 논리적인 사고로 토론할 수 있다.
- 주어진 조건을 파악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짧은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청소년 관점에서 기성세대의 삶 이해하기	1차시
독서 중	'선택' 독서 활동	2차시
	'모로의 내일' 독서 활동	3차시
	'행성어 작문 시간'과 '안녕! 정신 나간 천사'	4차시
	'나와 함께 트와일라잇을' 독서 활동	5차시
독서 후	자신의 주장과 이유로 논증 구조 익히기	6차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7~8차시
	'한국어의 특징' 설명하기	9차시
	'자신의 이야기' 작문 활동	10차시

- (가)의 노래와 (나)의 시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가) 엄마의 일기 - 왁스

너그럽게 웃으시는 당신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배웠죠
 철이 없는 나를 항상 지켜 주시는 하늘처럼 커 보인 당신
 우연히 서랍 속에 숨겨 둔 당신의 일기를 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사는 게 자꾸 힘에 겨워진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다투시던 날 잠드신 줄 알았었는데
 불이 꺼진 부엌에서 나는 봤어요 혼자 울고 계신 당신을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알아요 내 앞에선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분인걸
 느껴요 하지만 당신도 마음 약한 여자라는 걸

나 나나나나 나 나

알아요 당신 맘을 모두 다 이해해요
 믿어요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당신, 당신 모습 닮아 갈래요

(나) 엄마 걱정 - 기형도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흘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1) (가), (나)의 화자가 느끼는 '엄마'의 모습은 어떤지 말해 봅시다.

2) '엄마'에 대한 (가), (나) 속 화자의 심정은 어떤지 말해 봅시다.

3) 자신이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은 어떤지 말해 봅시다.

■ (가)~(바)의 관용어가 형성하게 된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 현재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가) 지나가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 안 된다.

(나)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달려 나가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해야 한다.

(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

(라) 선생님 목소리 하나라도 놓칠까 봐 맨 앞자리에 앉는다.

(마) 시골에서 어른이 오시면 버선발로 튀어 나간다.

(바) 양말 한 짝도 꿰매 신고 다녔다.

선생님께 관용어가 형성된 배경과 함께 당시의 가치관이나 인식 등을 이해해 보는 활동입니다. 현재의 가치관이나 정서 등과 비교하여 보고, 학급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우리 학급 관용어 만들기'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 「선택」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소설의 주인공인 작가 김선민은 독자로부터 메일을 받습니다. 독자의 메일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14~15쪽 참고)

질문	대답
독자의 주장은?	
독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독자가 작가에게 기대하는 바는?	

2. 독자에게 메일을 받은 작가 김선민은 답장을 보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질문	대답
독자와 공통적인 생각은?	
독자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작가가 쓰고 싶은 글이란?(예를 들어)	

3. 작가 김선민과 독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일을 참고했을 때, 나는 청소년 소설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4. 여러분이 꿈꾸는 장래 희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질문	대답
꿈꾸는 장래 희망(직업)은?	
장래 희망을 선택한 이유는?	
장래 희망을 선택한 주체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장래 희망을 이루고 나서 갖추어야 할 태도는?	
장래 희망을 발판으로 삼아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장래 희망이 사회에 미칠 특징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가 나의 장래 희망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5. 여러분의 장래 희망에 대한 친구들의 인식을 조사해 봅시다.

질문	친구1	친구2	친구3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을 이루고 나서 갖추어야 할 태도는?			
()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6. 여러분의 장래 희망에 대한 친구들의 인식을 토대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1. 모로의 주변에서 발생한 ‘꼰대들의 목소리’와 관련된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등장인물	성격(특성)	‘꼰대들의 목소리’ 내용	일어난 사건
문모로			
오가영			
권현채			
홍주연			
황민우			
담임 선생님의 조카			
교사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네 반 학생			
폭로자의 다섯째 누나			

2.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꼰대들의 목소리’를 정리해 봅시다.

‘꼰대들의 목소리’ 내용	당시 상황	나의 삶에 미친 영향

3. 우리 주변에서 ‘꼰대들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1. <보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보기>

아빠는 헤카테어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다. 말하는 것 역시 거의 못 했다.

이주 직후 부모님은 몇 달 동안 정착 교육을 받았다. 교육 과정에는 언어 수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빠의 헤카테어는 좀처럼 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엄마는 일취월장했다. 엄마는 배운 걸 잊지 않기 위해 집에서도 헤카테어로 얘기했다. 아빠가 마땅찮은 표정으로 근본 운운할 때마다 엄마는 말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새로 뿌리를 내려야지, 적응 못 하면 죽는 거야, 안 그래? 아빠는 아무 대꾸도 못 했다. 엄마는 아빠보다 빨리 일자리를 찾았다. 구오진에서 엄마는 거의 집에만 있었다. 구오진에는 일자리가 부족했고 돈 되는 일은 대부분 남자가 차지했다. 엄마는 이곳에 온 뒤로 좀 변한 것 같다. 나 왔어, 하고 현관문에 들어서서 엄마의 목소리를 크고 활기쳤다.

아빠도 일을 구하긴 했지만 정규직은 아니었다. ‘회계 재무 관리 업무 가능, 관련직 경험 있음, 서류 작성 능숙’이라는 이력을 등록해 놓은 구인 사무소에서 아빠는 자신의 훌륭한 능력에 걸맞은 일자리가 나기를 매일 기다렸다. 하지만 아빠에게 돌아오는 건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짐을 옮기거나 벽돌을 쌓는 일이었다. ㉠아빠에게는 ‘헤카테어’라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다. 아빠에겐 통역기가 절실했지만 구오진어 통역기는 없었다. 이곳에 구오진인은 드물었다. 아빠는 집에 돌아오면 이제야 살겠다는 듯이 숨을 파, 내 쉬고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말을 했다. 주로 구오진 얘기였다. 구오진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넘쳤는지. 아빠가 말하는 구오진과 내가 기억하는 구오진은 사뭇 달랐다.

내가 살던 행성인 구오진은 눈과 얼음뿐인 곳이었다. 태양이 하루 네 시간쯤 인색한 빛을 던지고 사라지면 완전한 어둠으로 덮였다. 구오진도 이곳 헤카테어처럼 사계절이 있었다고 한다. 오래전 얘기였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단어였다. 내가 아는 건 이불 속으로 파고 드는 한기와 차가운 공기 중으로 퍼지는 하얀 입김뿐이었다. 학교까지 걸어가는 동안 장갑 낀 손과 털 장화 속의 발이 뽕뽕 얼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인 줄로만 알았다.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건 다행이었다. 얼마나 혹독한 추위였는지 이곳 헤카테어에 와서야 알았다. 이곳의 가장 추운 날도 구오진의 가장 덜 추운 날보다 따뜻하다. (중략)

아빠는 구오진에 남기고 온 게 많았고 아빠의 마음은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다. 구오진어에서 서술어의 행위는 모두 과거이고 과거는 미래를 구속하므로, 내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 익숙한 장소들과 사람들. 그런 건 여기에 없다. ㉡숨 쉬는 것처럼 따로 배울 필요 없던 것들. 이곳에서 나는 밥 먹는 법까지 다시 배워야 했다. 나는 이곳 헤카테어가 좋지도 싫지도 않다. 봄과 벚꽃은 아름답다. 바람이 불면 하얗게 떨어지는 꽃잎이 꼭 구오진의 눈보라 같다. 아름답긴 하지만 몹시 기묘하게 느껴진다. 늦은 밤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창에 비친 희끄무레한 내 모습을 보면 낯설다. 어딘가 나를 두고 온 기분이 든다.

「행성어 작문 시간」, 『모로의 내일』, 81~84p.

(1) 엄마, 아빠, 나(요킨)에게 구오진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봅시다.

아빠의 구오진	엄마의 구오진	나(요킨)의 구오진

(2) ㉠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내가 가진 것 중에 ㉠과 같은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친구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2. 다음 <보기>는 ‘행성어 작문 시간’에서 조우마린 선생이 요킨에게 한 말입니다. 밑줄 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정리해 봅시다.

<보기>

“완전히 다른 누군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구오진의 요킨과 이곳의 요킨은 같은 사람이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건 기억입니다. 떠난 곳을 두 번 다시 갈 수 없다고 해도 그곳에 살았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기억에 남아 있죠. 잃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한다면 회복하려고 하겠죠. 완벽한 원상 복구는 불가능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요킨을 요킨으로 남아 있게 할 거예요.”

「행성어 작문 시간」 『모로의 내일』, 90p.

3. '안녕! 정신 나간 천사'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1) 내가 J에게 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내가 J에게 마음이 식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내가 가진 편견과 J가 가진 편견이 각각 무엇인지 책의 내용에서 찾아 정리해 봅시다.

'나'의 편견	J의 편견

1. 여러분이 만약 ‘나와 함께 트와일라잇을’을 영화로 제작한다면 어떤 캐스팅 보드를 만들 것인지 모둠을 구성하여 친구들과 작성해 봅시다.

인물	성격	캐스팅 배우	캐스팅한 이유
아빠			
엄마			
솔			
이영이			

2. ‘솔’이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뱀파이어’가 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여러분은 찬성하나요?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찬성과 그 이유	반대와 그 이유

3. 영이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에너지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던 것과 같이 만일 내가 뱀파이어가 되어 하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보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보기>

㉠ 그 시간 이후 나는 홀로 어른이 되었고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단단한 어른이 되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제 나를 함부로 훼손시킬 수 없다. 특별한 영혼과 심장. 그것이 영이가 내게 건 저주이자 축복이었다.

「나와 함께 트와일라잇을」, 『모로의 내일』, 161p.

(1) ㉠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 특별한 영혼과 심장이 없이 어른이 되는 것을 저주이자 축복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작품 ‘선택’을 읽고 활동해 봅시다.

1. 글쓰기의 의미를 제시하는 <보기> 주장 중 자신이 가장 공감하는 의견을 골라 봅시다.

보기

- 글을 쓰는 일은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다.
- 글쓰기는 자기 위로의 행위이다.
- 글쓰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이다.
- 글쓰기는 누군가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행위이다.
- 글쓰기는 있는 사실을 전하며 독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장치이다.

나의 선택

2. 자신이 선택한 의견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어 봅시다.

나의 선택	
그렇게 생각한 이유	

선생님께 ‘이유’는 의견(주장)에 대한 자신의 또 다른 생각입니다. 즉, 의견(주장)과 이유 모두 말하는 이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유는 의견(주장)에 포함되는 하위 주장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합니다. 이유는 여러 문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같은 의견을 선택한 학생끼리 모둠을 만들어 여러 이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 봅시다.

선택한 이유			
근거 자료			

4. 다른 의견을 선택한 학생 모둠 하나와 짝을 맺은 후 자신의 주장을 설득해 보고 상대 의견에 대해 반박을 해 봅시다.

상대방 의견	우리 모둠의 반박

7~8차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로 작품 깊이 읽기

- <보기> 참고 자료를 읽고, 주어진 논제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를 해 봅시다.

<보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주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보수적인 편이다.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일부 혐오와 부정적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거나 이주 노동자는 나라의 부를 훔쳐간다는 생각을 지닌 이들도 있다. 미등록 체류자들은 내쫓는 것이 마땅하며, 그들이 곧 범죄자라는 인식도 있다.

2019년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이주민은 240만명에 달한다. 이주 노동자 또한 90만명에 달해 그들이 없다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란 단어를 검색하면 연관 단어로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나오고, ‘불법체류자’ 연관 단어로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 반대’ 등 단어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시민단체가 사업주들의 임금 체불이나 인권침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과거보다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들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집성촌으로 내몰기 등의 행위들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 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주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출신 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별과 장애, 병력 등 23개 항목 등을 이유로 고용과 채용,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 4가지 영역을 이용하는 데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 토론 모형 :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팀	먼저 발언 팀		나중 발언 팀	
토론자 순서	제1토론자	제2토론자	제1토론자	제2토론자
1(8분)	입안(4분)		입안(4분)	
2(3분)	교차질의1		교차질의1	
3(8분)		반박(4분)		반박(4분)
4(3분)		교차질의2		교차질의2
5(4분)	요약(2분)		요약(2분)	
6(3분)	전체교차질의			
7(4분)		마지막 초점(2분)		마지막 초점(2분)

● 토론 방법

- ① 각 팀은 2명으로 구성하며 1토론자가 '입안, 교차질의1, 요약'을, 2토론자는 '반박, 교차질의2, 마지막 초점 발언'을 맡아 토론한다.
 - 각 팀을 4명으로 구성하여 8명이 토론할 때는 교차질의를 제외한 '입안, 반박, 요약, 초점'을 나누어 맡아 진행할 수 있음.
 - 각 팀을 3명으로 구성하여 6개의 단계를 2개씩 배분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
- ② 동전 던지기 등을 통해 토론을 시작한다. 동전 던지기에서 이긴 팀은 찬반을 선택하거나 발언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 이긴 팀이 찬성을 고르면 상대는 발언 순서를 고름. 반대로 이긴 팀이 발언 순서를 선택하면 상대는 찬반을 선택함.
- ③ 청중(판정관)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먼저 발언 팀이, 오른쪽에는 나중 발언 팀이 앉는다.
- ④ 입안(순서 1): 먼저 발언 팀 1토론자가 자기 측이 맡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논증 구조로 밝힌다. 상대 팀 1토론자도 같은 방식으로 발언한다.
- ⑤ 교차질의1(순서 2): 1토론자끼리 교차질의를 한다. 먼저 발언 팀이 질의를 시작한다.
- ⑥ 반박(순서 3): 각 팀 2토론자가 상대방의 입안을 분석하여 논증 구조로 반박을 진행한다.
- ⑦ 교차질의2(순서 4): 2토론자끼리 교차질의를 한다.
- ⑧ 요약(순서 5): 각 팀의 1토론자가 입안의 내용과 반박 과정에서 나온 이유, 근거를 중심으로 쟁점별로 자기 측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낸다. 토론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 ⑨ 전체 교차질의(순서 6): 토론 참가자 전체가 질의 응답을 한다.
- ⑩ 마지막 초점(순서 7): 각 팀 2토론자가 자기 측의 핵심 주장을 강조하고 상대 측의 약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 ⑪ 양 팀은 필요한 단계에서 각각 총 2분 동안의 '준비 시간'을 자유롭게 요청하여 쓸 수 있다. 2분을 몇 차례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논제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단계 \ 팀	먼저 발언 팀 (측)	나중 발언 팀 (측)
입안		
교차질의1		
반박		
교차질의2		
요약		
전체 교차질의		
마지막 초점		

- 다음은 '헤카테어'와 '구오진어'의 문법적 차이를 설명한 글이다. 한국어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한국어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 봅시다.

헤카테어와 구오진어는 매우 다르다. 헤카테어는 반드시 주어로 문장이 시작되지만, 구오진어에서는 대부분 주어는 생략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문장 맨 마지막에 놓인다.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오진어는 서술어에 시제가 없다. 말하거나 쓰는 순간 모든 행위는 과거가 되고 미래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표현하고 싶다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더하면 된다. 그런 경우는 드물다. 모든 행위는 연속성을 띠기 때문이다. 구오진어는 헤카테어보다 훨씬 간결하고 명료하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 헤카테인들은 상황이나 사건을 모호하게 표현하길 좋아하는 것 같다.

「행성어 작문 시간」, 『모로의 내일』, 78p.



헤카테어와 구오진어는 매우 다르다. 헤카테어는 반드시 주어로 문장이 시작되지만, 구오진어에서는 대부분 주어는 생략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문장 맨 마지막에 놓인다. 행위의 주체보다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_____

구오진어는 서술어에 시제가 없다. 말하거나 쓰는 순간 모든 행위는 과거가 되고 미래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표현하고 싶다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더하면 된다. 그런 경우는 드물다. 모든 행위는 연속성을 띠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_____

구오진어는 헤카테어보다 훨씬 간결하고 명료하다. 내 생각에는 그렇다. 헤카테인들은 상황이나 사건을 모호하게 표현하길 좋아하는 것 같다. 한국어는 _____

- 다음을 참고하여 <조건>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해 봅시다.

조우마린 선생은 ㉠예나 비유를 적절하게 쓰면 의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작문 점수가 형편없나 보다. 그게 다는 아니다. 나는 조우마린 선생이 내 주는 과제가 불편하다. 조우마린 선생은 늘 자신의 이야기를 쓰라고 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이 담긴 글을 요구했다. 구오진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나 가능하다.

「행성어 작문 시간, 『모로의 내일』, 78p.

[중략]

“㉢작문 제목이 뭐죠?”

“제, 제목은 ‘화물칸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선생이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맞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세하지만 친절한 편은 아닌 것 같다. 아니, 그 반대인 것도 같다. 나는 그 화물칸에서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용변은 어떻게 봤는지, 추위는 어떻게 견뎠는지, 내 옆에서 죽어 가던 사람의 마지막 숨소리가 어땠는지, 죽은 이를 둘러싼 가족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비통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들은 또렷이 기억한다. 그것은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들은 어둡고 혹독한 화물칸 안을 희뵘하게 밝히고 완전히 가지지 않은 빛을 품은 봄날의 저녁처럼 온화하게 떠돌았다.

선생은 예의 냉담한 목소리로 내게 수업이 끝나고 남으라고 했다.

“오올리아췌시비이이아오킨.”

언제 들어도 오싹했다. 나는 선생의 눈을 피해 고개 숙였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죠. **자신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살아 남는다고 나는 생각해요.

「행성어 작문 시간, 『모로의 내일』, 98~99p.

<조건>

- ㉠ ~ ㉢이 드러날 것
- 500자 이내로 작성할 것